



메콩강을 따라서



국 제 전 기 (주)
회 장 김 준 철

필자는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E.P Vietnam 2000)하노이 전시회 참가 7개 업체중 일원으로 '9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베트남을 방문했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국 전기공업진흥회 동남아 시장개척단과 합류해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까지 3개국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연구소, 진흥회 등 3개 기관 4명의 7개업체 중 일원으로 참여했다.

하노이 전시회는 미국, 러시아, 호주, 이태리, 타이완, 터키, 우크라이나, 한국 등 외국업체가 참가한 해외업체전시회로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직후 시작된 경제개방, 개발의 시금석이라 해도 좋을 것 같았다. 기초 인프라중 전력산업의 핵심이 외국업체의 몫이라는 상징으로서 또한 이제 막 전국적인 전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베트남 고유전기기술의 첫 단계로서 많은 전기공학도와 정부, 또는 전력공사 직원들 그리고 아직은 전문성이 미약한 일반 수입업자등 엄청난 관람객이 몰려왔다. 구체적인 제품에 대한 질문보다는 정보를 위한 카타로그 수집이 대부분 목적이었지만 젊은 전기·전자공학도나 정부투자 전기회사 간부들은 영어실력이 괜찮아서인지 구체적인 제품의 기능과 가격구조를 꼼꼼히 따져 물었다. 부스바 제작기를 출시한 남성기업사 이종성사장은 지난 추석때 싱가포르 전시회와 같이 전시샘플을 매각할만큼 인기가 좋았다. 변압기와 전선은 관수입철이 큰시장이었고 UPS, 정류기등은 민수



▲ 베트남 전력청(EVN) 방문하여 상담

시장도 꽤 넓으나 저용량위주로 보인다. 진흥회 공창덕 상근부회장이 시장개척단 단장으로 11월 30일 도착해서 당일 백낙환 주월 대사, 임유택 건설·교통참사관, 전시회참가업체, 경기도 중기청관계관 및 서울에서 도착한 10명등 30여명이 만찬을 함께 했다. 현지 백낙환 대사는 베트남은 앞으로 무한한 경제개발의 가능성을 지닌 거대한 잠재시장으로 매년 가속되는 개발템포에 따라 한국업체 참여가 기대되는 매력적인 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장접근방법에서는 철저한 인맥시장이라고 충고한 소영술 하노이 무역관장의 말이 전시회를 통해서 인지할수 있었던 참가업체들의 결론과 일치했다. 개방된 경제라도 아직은 베트남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한 권력형 관료·당료주의의 그들과 연결된 특이한 구조로서 시장접근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12월 1일 공창덕 단장과 일행은 EVN(Electricity of Viet Nam)을 공식 방문하여 송전전압이 66kv, 110, 220, 500kv 등으로 되어있고 현재 발전설비용량은 6,860MW이나 10년후 10,000MW를 넘는 전력수요를 감안 최고 12,982MW의 발전설비용량을 증설할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EVN 국제협력처장인 트란·민·감씨는 전반적인 설명을 한 후

중부베트남 전화사업 프로젝트를 비롯 향후 발전설비계획에 따른 국제입찰에 경쟁력있는 한국업체의 참여를 요청했다.

12월 2일 일행은 남부베트남의 호치민시를 방문 1박 2일의 관광을 했다.

주말의 호치민시는 불란서풍의 건축과 아름다운 공원을 배경으로 신혼부부들의 웨딩 야외촬영을 구경하면서 오페라하우스, 우체국, 성당을 지나 구월남의 대통령궁, 전쟁유물박물관을 돌아보았는데



▲ 세계10대 불가사의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 기념촬영



역시 압권은 전쟁유물관 이었다. 미국을 상대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쟁취한 공산베트남의 우월심과 전쟁의 참혹상 중에서 미군의 잔학한 만행, 당시 세계각국의 반전선언·데모 등 모든 반미 자료를 열거하고 내부 민족주의자들의 투쟁사를 사진자료로 제시함으로써 미국주도의 전쟁이 오히려 베트남을 통일시키고 단결시키는 계기가 된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어린 초등학생들의 관람속에서 인솔교사는 참전국명단에 한국군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듯이 우리 일행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12월 3일 일요일에는 왕복 6시간이 걸리는 구찌터널 관광을 했고, 싸이공강가를 거닐면서 기념촬영도 많이 했다.

12월 3일부터 6일 까지 필자는 초행의 캄보디아 프놈펜시와 씨엠립시에서 각각 2박, 1박하면서 EDC(Electricite' du Cambodge)를 방문하고 앙코르·와트 관광을 했다. EDC 방문에서는 현지 배창현 프놈펜 무역관장이 동행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했다. 일인당 국민소득 260달러, 총 발전설비 용량이 114,000kw의 후진국경제인 이나라는 계속되는 전쟁과 학살로 황폐화된 공산

주의의 희생물이었고, 10년 뒤 수요를 약50만kw로 예정하고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으로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를 하고 있으며 주변 베트남, 태국등 아세안 국가들과 전력사용계약에 따라 부족한 전력을 구매하고 있기도 하다. 개인용 발전기 수요가 많으며 변압기, 케이블 수요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EDC 탄·김·빈 청장은 말했다. 우리측 공창덕단장은 인사말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조하면서 진흥회가 매년 개최하는 SIEF에 EDC 관계관을 초청하겠다고 하자 즉각 수락했으며 한국전기연구소 박성균실장은 연구소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제3세계국가 전기기술자 등을 초청 무료로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EDC측 기술자를 파견할 것을 제의했고 내부연구검토를 거쳐 직접 연구소측에 답변하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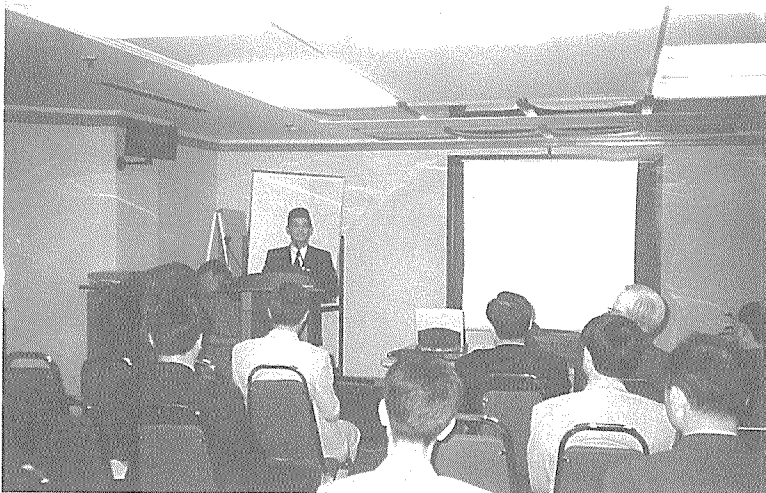
그밖에 신한전기 박영상 상무는 국제입찰에 관한 사항, 신정우산업 두석만 사장은 변압기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등을 질문했으며 필자는 전압변동을 심화에 따른 레귤레이터 사용여부를 확인 했다. 만찬에는 현지 김원태 대사, 오병성 참사관, 이용연 영사, 배창현 무역관장, 펜렝 EDC PM부장,

기타 현지 교포사업가등 30여 명이 어울렸다. 김원태 대사는 인사말에서 경제정책이나 행정 추진이 답답할 정도로 낙후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업체와 합작 또는 연결하여 개발 초기에 있는 이 나라에 기여할 여지는 있다고 역설했다. 만찬전 오후에는 KOTRA에서 호텔 특별 볼룸에서 사전에 열심히 홍보한 현지 바이어 및 교민회사들과 진지한 상담이 개최되었다.



▲ 도도히 흐르는 캄보디아 메콩강에서 동족진단 기념

프놈펜시 외곽쪽에 있는 전쟁범죄박물관은 시내 옆을 통과하는 메콩강가에서 바라보는 시아누크왕의 궁전과 더불어 중요한 관광명소였다. 박물관은 4년동안 폴포트 정권이 어떻게 300만이 넘는 자기국민을 고문·학살했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주는 소름끼치는 현장이었다. 필자는 5년전 방문했던 폴란드의 유대인 학살현장인 아우슈비츠가 떠올랐다. 학살의 숫자나 타민족 말살주의라는 반인류주의에서는 나치가, 자기민족 대량학살이나 고문방법, 처형대상 선별에는 폴포트가 각각 한수위였다. 교육받은 중산층이상을 모조리 죽인 것이다.



▲ TNB 전력청 방문 전무이사의 설명

고도 씨엠립은 앙코르·와트사원 하나 때문에 늘어나는 외국 관광객유치를 위해 여기저기 현대식 호텔건설이 한창이었다. 들던대로 엄청난 규모였다. 천년전에 세워진 많은 사원들이 밀림속에서 오래전에 발굴되었지만 아직도 외국에 의해 무너진 사원들의 흩어진 샌드·스톤들에 번호를 부쳐 놓고 몇 년에 걸쳐 하나하나 맞춰가며 복원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미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의 것

이 아닌 세계문화의 일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사원 벽면마다 정교하게 조각된 인도의 힌두이즘신화가 매력적이었고, 이를 통해 불교의 원류가 인도 힌두교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 일행들은 더위속에서도 일치단결하여 중요사원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현지 한국인 가이드를 따라 대부분 돌아보았고 저녁놀이 익어가는 야산꼭대기도 숨가쁘게 뛰어 올라갔다.

12월 6일부터 8일 까지 우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체류했다. 현지 김성준 무역관장, 정형식차장, 고광범 대리등의 치밀한 사전 준비로 현지 무역동향을 자세하게 브리핑받고 7일에는 TNB(전력청)를 공식 방문하고 사피·마트·자인 전무이사의 환영사와 브리핑을 받았다. 필자는 타입·테스트(Type Test) 문제가 입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간 시험소 상호인증이 이루어졌는데도 왜 우리나라 인증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으나 관련부처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해 연구소 박성균 실장이 강력

히 한번 더 항의했다. 결과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실정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체로 IMF위기를 독자적으로 극복한 말레이시아는 다시 전력산업에 투자를 시작해서 10년후 발전설비용량을 35,000MW로 확충할 계획이어서 한국업체의 국제입찰 참여의 적기라고 TNB관계자는 설명했다. 오후에는 호텔상담장에 마련된 업체별 테이블에서 미리 예약한 20여개업체들과 연쇄상담을 했으며 공단장, 무역관장이하 직원들이 계속 대기하면서



상담을 지원했다. 특히 상담중 유성정밀(이티아이) 황용하 사장이 비디오테이프로 회사를 소개하면서 상담하는 것이 특이 했고 케이디파워 이번우 회장은 첨단기술제품의 기능과 기술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필자는 금 번 동남아3개국 시장개척단과 합류해서 세일즈활동을 하는 동안 진흥회가 10년이 흐르면서 대외수출활동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

는 관리 노하우를 지녔다는 것을 절감했고 그결과 우리업체가 서로 뭉쳐 조직화된 수출활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동행한 한국전력공사 강내국과 장의 지원에 다시한번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인도차이나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이태올로기와의 전쟁에서 해방되어 도도히 흐르는 메콩강의 물살처럼 힘있게 그러나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 앙코르 와트 사원내 수백년이 지난 나무고목을 배경으로